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EASY 세계사 모의고사 2회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1	①	2	⑤	3	④	4	②	5	③
6	①	7	③	8	②	9	③	10	⑤
11	③	12	⑤	13	②	14	④	15	①
16	④	17	②	18	①	19	⑤	20	④

※ 정답과 해설 참고사항

1. 난이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쉬운 연표

★★★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어려운 연표

2. 자료 분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색 : 핵심 KEYWORD! 반드시 알아야 함!

⇒ 모르는/헛갈리는 정보라면 반드시 복습할 것!

파란색 : 자료 분석에 도움을 주는 세부 정보

⇒ 가볍게 복습할 것!(꼭 암기할 필요는 X)

노란색 배경 : 자료 분석에서의 결정적 단서

3. EBS 연계교재 또는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문제 풀이에 동원되는 내용은 **회색&기울임체**로 표시했습니다. 암기 대상이 아니므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 일부 문제는 하단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학습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5. 용어의 표기는 EBS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의 표기를 따랐습니다.

★ 예상 등급컷 ★

1등급 : 40점 / 2등급 : 35점 / 3등급 : 30점

★ 예상 오답률 TOP5 ★

1등 : 11번 - 종교 개혁 관련 연표 문제

2등 : 15번 - 쿠산 왕조 문제

3등 : 6번 - 사산 왕조 페르시아 문제

4등 : 12번 - 사회 계약설 문제

5등 : 16번 - 오스만 제국-오스트리아 관계 문제

1. ①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 금성교과서 자료 연계 ※

수사, 훌륭하고 성스러운 도시, 나는 정복하였다, **나는 수사의 지구라트를 부숴버렸다. 나는 엘람의 사원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들의 신들과 여신들을 바람에 날려 버렸다. 그들의 조상과 옛 왕의 무덤을 짓밟았고**, 그들의 뼈를 꺼내어 아슈르*로 옮겨 갔다.

* 아슈르 : **니네베**로 천도하기 전 (가)의 수도

나는 수사의 지구라트를 부숴버렸다. 나는 엘람의 사원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들의 신들과 여신들을 바람에 날려 버렸다. 그들의 조상과 옛 왕의 무덤을 짓밟았고, '니네베' 등을 통해 자료와 관련된 국가는 **아시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나는 수사의 지구라트를 부숴버렸다. 나는 엘람의 사원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들의 신들과 여신들을 바람에 날려 버렸다. 그들의 조상과 옛 왕의 무덤을 짓밟았고**

: (가) 국가가 서아시아의 도시인 수사의 지구라트, 사원 등을 파괴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서아시아 지역에 위치했던, 피지배 민족의 문화를 탄압하는 등 강압적으로 통치한 국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니네베**

: (가) 국가의 수도가 니네베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니네베를 수도로 하였고, 피지배 민족의 문화를 탄압하는 등 강압적으로 통치한 아시리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아시리아는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앙 집권적 정책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계승되었습니다.

오답인 이유 |

②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한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입니다.

③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한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신봉하는 데에서 나아가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하였습니다.

④ 산치 대탑을 건설한 것은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입니다.

⑤ 마니교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시기에 등장한 종교입니다. 따라서 **아시리아는 마니교를 탄압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니교를 탄압한 것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정답과 해설

2. ⑤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가)이/가 도읍을 건설할 때, 도성 안을 바둑판처럼 나누니, 이렇게 나뉜 구획은 모두 자로 그은 듯이 반듯하였다. 구획된 방(坊)에는 담을 쌓고 그 담의 문으로만 통행하게 하여,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도성에 발을 붙일 수 없었다. …(중략)… □(나) 이/가 □(가)을/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다스린 수백 년 동안에도 도성의 구획은 변하지 않았고, 나아가 상경성, 헤이조쿄 등의 도성 구획에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 □(가)이/가 도읍을 건설한 공이 어찌 적다고 하겠는가!

□(나) 이/가 □(가)을/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다스린 수백 년 동안에도 도성의 구획은 변하지 않았고, 나아가 상경성, 헤이조쿄 등의 도성 구획에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 등을 통해 (가) 왕조는 수, (나) 왕조는 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나) 이/가 □(가)을/를 멸망시키고

: (가) 왕조가 (나) 왕조에게 멸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 (나) 왕조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둘 중 하나와 관련된 근거를 찾으면 나머지 하나 또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중국을 다스린 수백 년 동안에도 도성의 구획은 변하지 않았고, 나아가 상경성, 헤이조쿄 등의 도성 구획에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

: (가) 왕조가 건설하고 (나) 왕조가 유지한 도성이 상경성, 헤이조쿄 등의 도성 구획에 영향을 주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왕조는 발해, 나라 시대의 일본 등에 영향을 준 당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왕조에 멸망하였으면서 (나) 왕조와 도읍이 같았던 (가) 왕조는 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⑤ 당 고종은 서돌궐을 정복하였습니다. 당 태종은 동돌궐을 정복하였으며, 당 고종이 서돌궐을 정복한 후 돌궐 제국은 완전히 멸망하였다가 7세기 말 부활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사대부 중심의 정치 체제가 형성된 것은 송 대입니다. 당 대까지는 문벌 귀족이 관직을 독점하고 특권을 차지한 귀족 중심의 정치 체제였습니다.
- ② 송의 왕안석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묘법과 시역법을 실시하였습니다.
- ③ 황소의 난은 당 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당도 황소의 난으로 급격히 쇠퇴하였지만 황소의 난으로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은 주전충의 난으로 멸망하였습니다.
- ④ 9품중정제가 시행된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9품중정제는 수 대에 폐지되었고, 이후부터 과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3. ④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수능특강 자료연계 ※

□(가)은/는 원로원 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의사당 문 앞에 앉아 원로원의 결정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자신들이 승인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옛날에는 'C'라는 문자가 원로원의 포고문에 부기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것은 □(가)들이 포고문을 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자신들이 승인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등을 통해 (가)는 호민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자신들이 승인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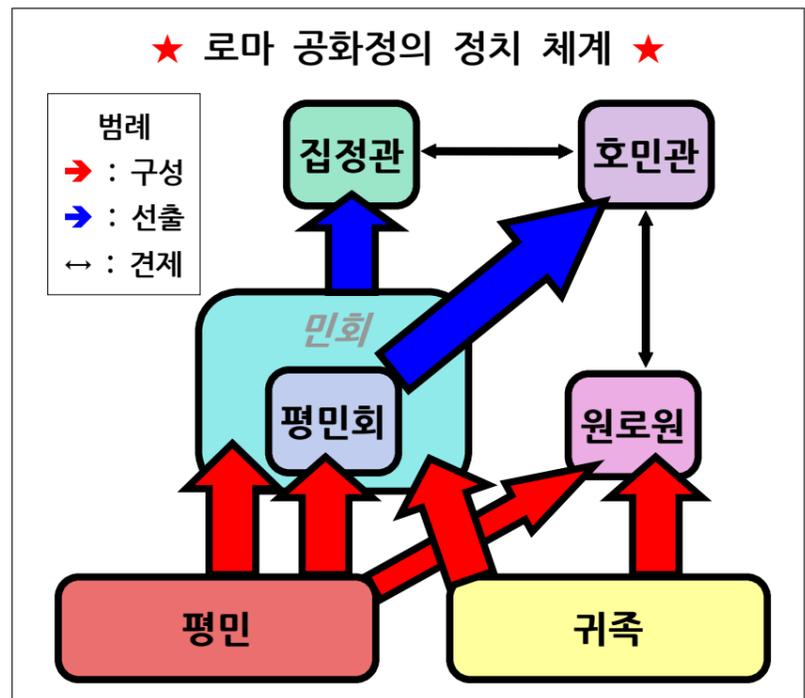
: (가)가 원로원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로원의 결의 또는 집정관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호민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④ 호민관은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하여 성장한 평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직입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호민관은 민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호민관은 추천으로 임명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임명된 것은 페리클레스 시대의 특수직을 제외한 관직과 배심원입니다.
- ② '프린킵스' 칭호를 받은 인물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 ③ 호민관은 민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호민관은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페이스스트라토스와 같은 참주입니다.
- ⑤ 호민관이 선출된 것은 리키니우스법 제정(기원전 4세기경, 기원전 367년) 이전인 기원전 5세기(기원전 494년)부터였습니다.



정답과 해설

로마 공화정의 정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로원, 민회, 집정관, 호민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원로원은 로마 공화정의 입법 기관으로, 처음에는 귀족으로만 구성되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평민들이 원로원 의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원로원은 법률을 제정하는 역할과 집정관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하기 이전까지 로마 공화정의 최고 기구로 자리잡았습니다.

민회는 관료 임명, 법률 제정 등을 담당한 기관으로, 쿠리아 민회, 켄투리아 민회, 트리부스 민회, 그리고 평민회로 나뉩니다. 쿠리아 민회, 켄투리아 민회와 트리부스 민회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시민이 할당되었기에, 대부분 귀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평민들이 반발하여 성산 사건을 일으키자 평민들로만 구성된 평민회가 만들어졌고, 호르텐시우스법이 제정되며 법률 제정 등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정관은 켄투리아 민회에서 1년에 2명씩 선출되었습니다. 집정관은 군사 지휘와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한 관직이며, 로마 공화정의 최고위 관직이었습니다. (다만 국가 비상시에 집정관 등의 결의에 의해 독재관이 선출되기도 하였는데, 독재관은 집정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임시 관직이었습니다.)

호민관은 평민회에서 1년에 10명씩 선출되었습니다. 이들은 법률을 제정할 권리와, 원로원 또는 집정관의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4. ②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는 '이겨도 득이 되지 않는 승리'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에페이로스 왕국의 피로스 1세가 로마를 공격한 피로스 전쟁에서 유래하였다. 피로스 1세는 ㉠알렉산드로스를 잇는 헬레니즘 시대의 전략가로, 피로스 전쟁 중 있었던 헤라클레아 전투, 아스쿨룸 전투에서 로마군을 완파하며 승리하였다. 그러나 피로스 1세 본인의 군대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반도에서 어떠한 이익도 건지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다. 오히려 패자였던 로마가 전쟁 이후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하며 승승장구하였으니, 피로스 전쟁의 승자인 피로스 1세와 에페이로스 왕국은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득이 없었던 것이다. 피로스 전쟁 이외에도 '피로스의 승리'의 사례로 볼 수 있는 여러 역사적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그리스 세계 전체를 침체의 길로 이끈 ㉢펠로폰네소스 전쟁, 로마 자영농의 몰락을 야기한 ㉣포에니 전쟁, 한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박살낸 ㉤한 무제의 흉노 원정 등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정답인 이유 |

② 로마는 평민권의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급속한 팽창을 시작 하였습니다. 리키니우스법을 제정한 것은 '평민권의 성장 과정'에 해당하며,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한 것은 '급속한 팽창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탈리아 반도 장악이 리키니우스법 제정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알렉산드로스는 이소스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 등에서 승리한 후,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하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 ③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스파르타가 이끄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아테네가 이끄는 델로스 동맹에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 세계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 ④ 세 차레의 포에니 전쟁에서 패하며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멸망하였습니다.
- ⑤ 한 무제는 평준법, 균수법 등을 시행하여 박살난 재정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 함께 풀어보면 좋을 EASY 문제 ★

2022학년도 수능 대비 EASY 모의고사 1회 7번

7. (가), (나) 법령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3점)

(가) 콘술(집정관)을 부활시킨다. 콘술 중 한 명은 평민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이미 지불한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된다. 그리고 잔액을 3년 균등 분할 납부한다.

(나)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을 500유게라로 정한다. 이밖에 아들의 명의로 한 명당 250유게라까지의 임차를 인정한다. 다만, 일가족 전체의 임차지가 1,000유게라를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목축용 가축 수도 600마리를 상한으로 한다.

1,000유게라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환하고, 국가는 반환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다음 국가는 상실 실무 위원회를 설치하여 희망하는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재분배한다.

- ① 로마가 이탈리아반도를 통일하였다.
- ② 호민관직이 설치되었다.
- ③ 제1차 삼두정치가 전개되었다.
- ④ 로마 왕정이 붕괴되었다.
- ⑤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났다.

답 : ①

정답과 해설

5. ③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그런데 11월 20일, **쿠빌라이의 군대**가 배에서 내려 말을 타고 깃발을 높이 내걸고 쳐들어 왔다. 그들의 대장은 겨우 12세였다. 그들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한 신호로 작은 화살을 쏘자 쿠빌라이의 군대는 일제히 웃으며 함성을 질렀다. 그 함성이 너무나도 커 그들의 말들이 놀라 허둥거렸다. 말들을 겨우 달렸으나 적을 향해 나아갈 기력을 잃었다. …(중략)…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쳐들어가면 쿠빌라이의 군대는 양쪽 끝에서 그들을 포위하여 남김없이 도륙하였다. 그들은 쿠빌라이의 무장을 활로 맞춰 패주시키는 등 분전하였지만, **쿠빌라이의 군대와 그 부마 총렬왕의 군대가 모두 상륙**하자 반나절만에 전멸당하였다.

‘쿠빌라이의 군대’, ‘쿠빌라이의 군대와 그 부마 총렬왕의 군대가 모두 상륙’ 등을 통해 밀줄 친 ‘그들’과 관련된 정부는 **가마쿠라 막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쿠빌라이의 군대**

: 밀줄 친 ‘그들’을 쿠빌라이의 군대가 공격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그들’과 관련된 정부는 원의 쿠빌라이 칸과 전쟁을 벌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쿠빌라이의 군대와 그 부마 총렬왕의 군대가 모두 상륙**

: 밀줄 친 ‘그들’이 쿠빌라이 칸의 군대와 총렬왕의 군대 모두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그들’과 관련된 정부는 여몽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가마쿠라 막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③ **가마쿠라 막부**는 슈고와 지토를 파견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봉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도다이사 대불은 **나라 시대**에 건립되었습니다.
- ② 산킨코타이제를 실시한 것은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는 산킨코타이제를 통해 중앙 집권적 봉건제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남북조를 통일한 것은 **수 문제**, 또는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쓰**입니다.
- ⑤ 조선을 침략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도요토미 정권은 무로마치 막부와 에도 막부 사이 시기에 존속하였습니다.

6. ①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돌궐의 이스테미 카간은 [가]에 사절을 파견하여 비단 무역을 허가받자는 소그디아나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그디아나 상인들로 구성된 사절을 [가]에 파견하였다. [가]의 황제는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을 계속해서 회피하다가, 사절단의 요구가 거세지자 그제서야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때 에프탈 출신의 카톨포스가 사절단이 가져온 비단을 불태워 돌궐과의 교역 따위는 [가]에게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자고 황제에게 건의하였다. 황제가 그의 의견을 따라 비단을 태웠고, 사절은 돌궐로 돌아갔다가 다시 [가]을/를 방문하자, [가]의 황제는 그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이에 [가]와/과 돌궐은 적대 관계가 되었다. 아! **[가]이가 서에서, 돌궐이 북에서 공격해 에프탈을 멸하였더니, 그 에프탈이 돌의 친선을 멸하는구나!**

‘[가]이가 서에서, 돌궐이 북에서 공격해 에프탈을 멸하였더니, 그 에프탈이 돌의 친선을 멸하는구나!’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가]이가 서에서, 돌궐이 북에서 공격해 에프탈을 멸하였더니, 그 에프탈이 돌의 친선을 멸하는구나!’**

: (가) 국가가 에프탈의 서쪽에서, 돌궐이 에프탈의 북쪽에서 공격해 에프탈이 멸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프탈은 5~7세기에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지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5~7세기경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서쪽에 위치했던 국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3~7세기에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서쪽, 즉 페르시아 지역에 위치했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특강 57p
굽타 왕조 관련 이미지

정답인 이유 |

①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금속 세공과 유리 공예가 발전하였고, 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품이 유럽과 동아시아로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② 메카와 메디나는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대립으로 인해 발달한 우회 교역로인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즉, 메카와 메디나는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영향권 밖에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메카와 메디나를 장악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메카와 메디나를 장악한 국가로는 무함마드 시대의 이슬람 제국과 오스만 제국 등이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 ③ 니네베에 도서관을 건립한 국가는 **아시리아**입니다.
- ④ 한과 로마 사이의 중계 무역을 벌인 국가는 **파르티아**입니다. 한은 220년에 멸망하였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224년에 건국되었으니,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한과 로마 사이의 중계 무역을 벌일 수 없습니다.**
- ⑤ 지즈야를 납부하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국가는 오스만 제국, 델리 술탄 왕조, 무굴 제국 등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지즈야를 징수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출제자의 COMMENT ★

6번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 국가가 에프탈의 서쪽에서 공격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에프탈의 시기 정보와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사산 왕조 페르시아임을 추론하는 것이었습니다.

6번 문제는 위치 정보가 텍스트로 주어졌기에 난이도가 더 높아졌지만, 평가원에서는 지도를 활용해 위치 정보를 묻는 문제를 많이 출제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해당 시험에서 킬러의 역할을 특히 해내고 있고요. 따라서 **평가원 기출, 수능특강, 교과서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지도들을 통해, 위치 정보를 파악하며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출 문제※ - 위치 정보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굽타 왕조-사산 왕조 페르시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7번 (포르투갈 식민지)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영국/이탈리아 식민지)

★ 함께 풀어보면 좋을 EASY 문제 ★

2021학년도 수능 대비 EASY 모의고사 4회 8번

8. 밑줄 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에프탈(Hephtal)은 중국 사서에서는 엽달·읍달·활, 일본에서는 스베타 훈(Sveta Hun, 즉 White Hun)이라 불렸고, 히온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다. …(중략)… 이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자리잡고 동서 교역의 요충지를 장악하여 거기서 얻은 중개 이익으로 번영하였다. 그러나 에프탈은 6세기 중엽에 북방의 신흥세력인 돌궐과 에프탈 서쪽을 장악한 제국의 협공으로 멸망하였다.

-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 ① 이슬람 제일주의를 지향하였다.
- ②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였다.
- ③ 마누 법전을 정비하였다.
- ④ 마니교를 탄압하였다.
- ⑤ 카니슈카 왕 대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답 : ④

7. ③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반란군이 **델리**를 점령하자, 술탄나* 라지야는 **외조부와 부친이 지은 쿠트브 미나르**를 탈환하고자 전력을 다하였다. …(중략)… 반란군의 우두머리들은 도망쳤으나 술탄나의 기병대가 그들을 쫓았고, 우두머리들은 곧 죽임당하였다. 술탄나의 책략을 통해 반란이 마무리되었고 **왕조**는 평화롭게 되었다. 라크나우티부터 다이볼까지 전 영토에 걸쳐 모든 왕족과 가족들이 술탄나에 복종하였다.

* 술탄나 : 술탄의 여성형 표현

‘델리’, ‘외조부와 부친이 지은 쿠트브 미나르’ 등을 통해 밑줄 친 ‘왕조’는 **델리 술탄 왕조(중 아이바크 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델리**
 : 밑줄 친 ‘왕조’의 군대가 반란군과 델리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반란군을 진압하고 델리를 수복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왕조’는 델리를 차지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외조부와 부친이 지은 쿠트브 미나르**
 : 술탄나의 외조부와 부친이 쿠트브 미나르를 건립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의 술탄나가 아이바크의 외손녀 또는 딸임을 추론할 수 있으며, 밑줄 친 ‘왕조’는 델리 술탄 왕조 **중 아이바크 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③ **델리 술탄 왕조의 국가들은 델리를 중심으로 하여 북인도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지즈야를 폐지한 것은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입니다. 델리 술탄 왕조의 국가들은 다른 종교를 인종해 주는 조건으로 비이슬람교도에게 지즈야를 징수하였습니다.
- ② 산치 대탑을 건립한 것은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입니다.
- ④ 양카라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티무르 왕조의 티무르**입니다.
- ⑤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술탄 칭호를 받은 것은 **셀주크 튀르크의 투그릴 베그**입니다.

8. ②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복되도다 후손들이여. 이 참상을 겪지도 않고, 이 참상을 그저 옛이야기 정도로나 들을 수 있다니…” **이탈리아의 시인 페트라르카**는 **수많은 사람들이 까맣게 썩은 피부와 함께 죽어가는** 참상을 목도한 후 이렇게 읊조렸다. 이 참상으로 인해 이탈리아에서만 인구의 1/3이 사망하였다.

‘이탈리아의 시인 페트라르카’, ‘수많은 사람들이 까맣게 썩은 피부와 함께 죽어가는’ 등을 통해 밑줄 친 ‘참상’은 **흑사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근거 1 | 이탈리아의 시인 페트라르카

: 14세기에 활동한 이탈리아의 시인 페트라르카가 밀줄 친 ‘참상’에 대해 읊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참상’은 14세기에 있었던 일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수많은 사람들이 까맣게 썩은 피부와 함께 죽어가는

: 밀줄 친 ‘참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부가 까맣게(黑, 검을 흑) 썩어들어가며 죽고(死, 죽을 사)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참상’은 14세기에 창궐한 흑사병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② 흑사병의 영향으로 농민의 수가 줄어들면서, 장원이 해체되고 농노가 해방되었고 자영 농민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면서 라틴 제국이 수립되었습니다.
- ③ 흑사병의 영향으로 장원이 해체되면서 영주와 기사는 몰락하였습니다.
- ④ 비잔티움 제국은 지속된 외침으로 위기를 맞이하자, 7세기경 군관구제를 실시하여 위기를 타파하고자 하였습니다.
- ⑤ 영국에서 존왕의 실정이 계속되자, 1215년에 영국 귀족들이 존왕을 압박하여 대헌장을 승인받았습니다.

9. ③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황명이 온 세계를 섞어 하나로 만드니 **하, 은, 주 세 왕조를 뛰어넘고 한과 당을 앞서며** 땅끝까지 신하로 삼지 않는 나라가 없다. 바다 건너 있는 여러 번국은 참으로 먼 나라지만, 모두 보물을 가지고 몇 사람의 통역을 거치고 와서 조공한다.

해군 원정대를 통솔하고 **캘리컷** 등의 나라로 갔다. 당시 해적 진조이가 스리위자야에서 많은 무리를 모아 외국 상인을 겁락하고 우리 해군 원정대를 공격하였지만 단번에 진멸하였다.

해군 원정대를 통솔하고 각국으로 갔다. 도중에 **스리랑카**에 갔을 때 그 왕 알라각코나라가 불손하여 원정대를 해치려 꾀하였으나 신의 도움으로 이를 알게 되었고 알라각코나라를 포로로 잡아 귀국하여 황제께 바쳤다.

해군 원정대를 통솔하고 **호르무즈** 등의 나라로 갔다. 수마트라에서 세칸데르가 본국을 침범하여 약탈을 일삼았다. 자인 알 아비딘이 조정에 사신을 보내 이를 호소하였으므로 관병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고 사로잡았다. 신의 도움으로 세칸데르를 포로로 잡아 귀국하여 황제께 바쳤다. 이 해 므라카 국왕이 친히 조공하였다.

‘하, 은, 주 세 왕조를 뛰어넘고 한과 당을 앞서며’, **캘리컷**, **스리랑카**, **호르무즈** 등을 통해 자료와 관련된 왕조는 **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하, 은, 주 세 왕조를 뛰어넘고 한과 당을 앞서며

: 자료에서 하, 은, 주, 한, 당 등 중국 왕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와 관련된 왕조는 중국의 왕조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캘리컷**, **스리랑카**, **호르무즈**

: 자료와 관련된 왕조가 파견한 해군 원정대가 캘리컷, 스리랑카, 호르무즈 등을 방문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군 원정대는 정화의 원정대이며, 자료와 관련된 왕조는 명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③ 명의 영락제는 베트남을 공격하여 잠시 지배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임안으로 천도한 것은 남송입니다.
- ② 군기처를 설치한 것은 청 옹정제입니다.
- ④ 수시력을 편찬한 것은 원입니다.
- ⑤ 전연의 맹을 맺은 것은 송과 거란(요)입니다.

10. ⑤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북위의 한화 정책이 북위의 분열로 이어진 것을 목격한 **유목 민족**들은 자신들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시가 고유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유목 민족들의 문자들 중에서도 **〔가〕** 문자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일단 **〔가〕** 문자는 한자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파스파 문자, 만주 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목 민족 문자들이 갖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 문자 다른 유목 민족 문자들과 달리 획수가 매우 늘어난 기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독특한 점은, 복잡한 형태의 문자였음에도 오랫동안 쓰인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다. **〔가〕**은/는 **몽골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멸망**하였지만, **살아남은 탕구트족**의 일부가 **〔가〕** 문자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중 가장 최근에 사용된 사례는 1502년 제작된 불교 장엄구에 사용된 것이다.

‘유목 민족’, ‘몽골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멸망’, **살아남은 탕구트족** 등을 통해 (가) 왕조는 **서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유목 민족, 몽골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멸망

: (가) 문자가 유목 민족들의 문자이며, (가) 왕조가 몽골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왕조는 몽골에 의해 멸망한 유목 민족 국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서하, 금 등이 몽골에 멸망한 유목 민족 국가이므로,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살아남은 탕구트족**

: 몽골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탕구트족이 (가) 왕조의 문자를 계속해서 사용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왕조는 탕구트족이 건국한 서하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인 이유 |

- ⑤ 서하는 송과 군신 관계를 체결하고 송의 신하를 칭하는 대신, 송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세폐를 받았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카이펑을 함락하여 송 황제를 생포한 것은 금입니다. 금은 정강의 변을 일으켜 카이펑을 함락하고 송 황제를 생포하였으며, 송은 임안으로 천도하여 남송을 수립하였습니다.
- ② 천호제를 토대로 정복 활동은 전개한 것은 원(몽골)입니다.
- ③ 서하는 불교를 장려하였으나, 대장경은 편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장경을 편찬한 국가는 요(거란), 송, 고려 등입니다.
- ④ 화북의 연운 16주를 차지한 것은 요(거란)입니다. 요(거란)는 석경당이 후당을 멸망시키고 후진을 건국하는 것을 도운 대가로 연운 16주를 할양받았습니다.

11. ③

난이도 | ★★★(어려운 연표)

자료 분석 |

부르봉 공작 샤를 3세와 그가 이끄는 용병들이 입성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로마 수비군은 붕괴되었다. 그리고 루터교 신자가 대부분이던 용병들은 '적그리스도의 본거지'인 로마를 마구 약탈하기 시작했다. 사제들은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수녀들은 용병들에게 마구 겁탈당한 후 살해당하였다. 클레멘스 7세는 산탄젤로 성으로 도망가 약탈이 끝나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로마는 반 년 동안 불타올랐고,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다.

루터교 신자가 대부분이던 용병 등을 통해 자료와 관련된 사건은 적어도 1517년 이후에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와 관련된 사건은 사코 디 로마(1527년)로, 신성 로마 제국 군대가 로마를 함락하여 약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황권은 완전히 바닥을 찍게 됩니다.

근거 | 루터교 신자가 대부분이던 용병

: 로마를 함락한 용병들이 대부분 루터교 신자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루터교(루터파)는 1517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이후 형성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와 관련된 사건은 적어도 1517년, 즉 95개조 반박문이 발표된 이후에 전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 ③ 바스쿠 다 가마는 1498년에 인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예수회는 이냐시오 데 로올라가 1534년에 창설하였고, 1540년에 교황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았습니다.
- ② 낭트 칙령은 159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 ④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 대학살은 위그노 전쟁 중인 1572년에 일어났습니다.
- ⑤ 신성 로마 제국 내의 제후들이 벌인 슈말칼덴 전쟁(1531년~1552년) 이후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체결되면서 루터파가 인정되었습니다.

★ 출제자의 COMMENT ★

이전까지 11번 문제와 같은 연표 문제는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외의 내용의 연표를 묻는 것이나 다름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11번 문제의 돌파구는 완벽히 교육과정 내에 있음을 풀이 과정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11번 문제와 같은 시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표 문제의 난이도를 극상으로 올리려고 한다면 이러한 시도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더불어, 모르는 키워드에 당황하지 않는 자세가 11번 문제에서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부르봉 공작', '산탄젤로 성'과 같은 생소한 키워드가 아니라 '루터교'였으니까요. 교육과정 외의 것은 개념치 말고 아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2. ⑤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세계사 수능특강 연계 ※

(가) : 정치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에 있다. ... (중략) ...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되므로, 인간은 개인행동의 자유를 지배자의 손에 맡기기 위한 일종의 합의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 권력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또다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나) : 인간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 데 합의하는 것이다. ... (중략) ... 만일 정부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

[A] : 신은 사람들이 왕을 신의 대리로서 존경할 것을 희망하였다. 신은 신민으로서 태어난 자는 모두 왕에게 무조건 복종하기를 희망한다.

[B] : 동일한 인간이 또는 동일한 단체가 세 가지 권력,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과 공공의 결정을 실행하는 권력, 범죄나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하는 권력을 모두 행사한다면 모두 망치고 말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 권력을 줘야 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등을 통해 (가) 인물은 홉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가) 인물은 자연 상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나아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주장한 홉스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근거 2 |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 권력을 줘야 한다.**

: (가) 인물은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막으려면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인간이 평화를 위해 사회 계약을 맺고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지배자에게 양도한다고 주장한 홉스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

등을 통해 (나) 인물은 **로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

: (나) 인물은 인간의 자연권으로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은 생명·자유·재산권을 자연권으로 규정한 로크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

: (나) 인물은 자연권 보장을 위해 정치적 권리를 위임받은 정부가 그 기능을 행하지 못하면 타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인물은 저항권을 규정하고 계약을 위반한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명예 혁명을 정당화)한 로크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⑤ **‘왕을 신의 대리로서 존경’** 등을 통해 주장 [A]는 왕권신수설과 관련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홉스와 로크는 모두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인물이므로, 주장 [A]에 대해서는 모두 비동의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앞서 살펴본 대로, 홉스는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절대 왕정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았다는 것은 홉스가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홉스는 ‘계약을 통해 개인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양도받은’ 절대 군주를 옹호한 것이지,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절대 군주를 옹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홉스도 왕권신수설에 대해서는 비동의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이유 |

‘세 가지 권력’,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과 공공의 결정을 실행하는 권력, 범죄나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하는 권력’ 등을 통해 주장 [B]는 삼권분립과 관련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홉스는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 권력을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권력의 분립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홉스는 주장 [B]에 대해 비동의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주장 [A], [B]에 대한 (가), (나) 인물의 의견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나)
[A]	비동의	비동의
[B]	비동의	?

※ 로크는 권력의 분립에 대해서는 동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권 분립(입법과 행정의 분립)을 주장하였습니다.

★ 출제자의 COMMENT ★

12번 문제는 세계사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와 사상 문제의 성격이 짙은 문제입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의 주장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 점을 바탕으로 제3의 주장에 대한 견해까지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웬만하면 평가원에서 이러한 형식의 문제를 내지 않을 거라 판단하며, 실제로 평가원은 지금까지 사회계약설을 포함한 여러 사상 파트를 피상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12번 문제와 같이 사상 파트는 언제든지 킬러 문제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사상 파트에 대해서도 꼼꼼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②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무릇 천하의 토지는 천하의 사람이 함께 경작해야 하고, 천하의 토지는 풍작과 흉작을 서로 융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천하 사람이 **상제**의 커다란 은혜를 입도록 노력한다. 밭이 있으면 같이 갈고, 음식이 있으면 같이 먹고, 옷이 있으면 같이 입고, 돈이 있으면 같이 쓴다. 어떤 사람이든 모두 균등하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한다.

‘무릇 천하의 토지는 천하의 사람이 함께 경작해야 하고, 천하의 토지는 풍작과 흉작을 서로 융통해야 할 것이다.’, **상제** 등을 통해 자료와 관련된 근대화 운동은 **태평천국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무릇 천하의 토지는 천하의 사람이 함께 경작해야 하고, 천하의 토지는 풍작과 흉작을 서로 융통해야 할 것이다.**

: 천하의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와 관련된 근대화 운동은 토지 균분을 주장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상제**

: 자료와 관련된 근대화 운동의 세력이 ‘상제’를 섬기고 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료와 관련된 근대화 운동은 배상제회가 주도한 태평천국운동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② 홍수전 등은 멸만흥한을 주장하며 봉기한 후 태평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오답인 이유 |

① 중화민국 수립으로 이어진 것은 신해혁명입니다.

③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한 한인 신사충의 주도로 양무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④ Kangyue, 량치차오가 주도한 것은 변법자강운동입니다.

⑤ 21개조 요구의 철폐를 요구한 것은 5·4 운동입니다.

정답과 해설

14. ④

난이도 | ★☆☆(쉬운 자료 & 쉬운 선지)

자료 분석 |

살피건대, (가)은/는 비범한 사람이다. 무기를 들고 일어난 것은 진승, 오광과도 같고, 천하를 분할해 웅거함을 조조, 유비와도 같다. 그러나 **세 자 검을 들고 일어나 미리건*의 만 리가 되는 영토를 얻었건만, 참람되이 왕을 자칭하지 않고, 자리를 자손에게 물려주지도 않고, 외려 선거의 법을 세웠으니**, 모두 천하위공에 따른 것이었다. ...**(중략)...** **(가)이/가 세운 나라는 합중국의 도를 따르고, 그 나라는 나라의 일을 민의에 따라 처리**하여 고금에 없던 형국을 만들어냈으니, 고금의 서양 인물을 통틀어, 어찌 (가)이/가 으뜸간다 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미리건(彌利堅) : 아메리카의 음차어

- 서계어, 『영환지략』

세 자 검을 들고 일어나 미리건*의 만 리가 되는 영토를 얻었건만, 참람되이 왕을 자칭하지 않고, 자리를 자손에게 물려주지도 않고, 외려 선거의 법을 세웠으니, (가)이/가 세운 나라는 합중국의 도를 따르고, 그 나라는 나라의 일을 민의에 따라 처리 등을 통해 (가) 인물은 **조지 워싱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 **세 자 검을 들고 일어나 미리건*의 만 리가 되는 영토를 얻었건만, 참람되이 왕을 자칭하지 않고, 자리를 자손에게 물려주지도 않고, 외려 선거의 법을 세웠으니, (가)이/가 세운 나라는 합중국의 도를 따르고, 그 나라는 나라의 일을 민의에 따라 처리**

: (가) 인물이 아메리카의 영토를 얻은 후, 합중국을 구성하고 왕위에 오르지 않았으며 선거의 법을 세웠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인물은 미합중국을 건국하고 선거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지 워싱턴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④ 조지 워싱턴은 독립 전쟁에서 총사령관으로 활약하며 요크타운 전투 등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권리 청원을 수용한 인물은 찰스 1세입니다.
- ② 대륙 횡단 철도는 1869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 북부 사령관으로 활약한 윌리엄스 그랜트입니다.
- ③ 남북 전쟁의 혼란을 수습한 인물은 에이브러햄 링컨과 그 후임인 앤드류 존슨, 윌리엄스 그랜트 등입니다.
- ⑤ 고립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독트린을 발표한 인물은 제임스 먼로입니다.

15. ①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장건이 다녀간 지 150여 년이 지난 후, 대월지의 다섯 제후 중 한 명인 쿠줄라 카드피세스는 대월지의 나머지 제후들을 복속하여 힌두쿠시 산맥을 평정하였다. 나아가 카드피세스는 편자브 지역을 정복하고 왕조를 건국하였다. 왕조는 카드피세스의 증손자 대에 전성기를 꽃피웠는데, 그는 **푸르사푸라**를 도읍으로 한 후, 간다라 지역과 편자브 지역을 아우르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장건이 다녀간 지 150여 년이 지난 후**’, **푸르사푸라**, **‘간다라 지역과 편자브 지역을 아우르는 최대 영토를 확보’** 등을 통해 밀줄 친 ‘왕조’는 **쿠산 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장건이 다녀간 지 150여 년이 지난 후**

: 밀줄 친 ‘왕조’가 장건이 대월지에 다녀간 지 150여 년이 지난 후 건국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장건의 서역 파견은 기원전 2세기경(B.C. 137년~B.C. 12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왕조’는 1세기경 건국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푸르사푸라**

: 푸르사푸라는 간다라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쿠산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밀줄 친 ‘왕조’는 쿠산 왕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쿠산 왕조(30년~375년)와 파르티아(기원전 247년~기원후 224년)는 비슷한 시기에 한과 로마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번영하였던 국가입니다. 또한 한과 로마 사이의 중계 무역을 위해 인도 지역에 위치한 쿠산 왕조는 서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파르티아와도 교역해야 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쿠산 왕조는 파르티아와 교역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이유 |

② 벵골만은 인도 동부에 위치한 만입니다. 그러나 쿠산 왕조는 인도 서북부, 즉 편자브 지역과 간다라 지역에 걸쳐 위치했던 국가입니다. 또한, 오른쪽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 쿠산 왕조의 최대 영역은 벵골만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쿠산 왕조는 벵골만으로 진격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특강 56p

쿠산 왕조 관련 이미지

③ 앙코르와트를 건립한 것은 **캄보디아의 앙코르 왕조**입니다.

정답과 해설

- ④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바르다마나(마하비라)는 기원전 6세기 경(기원전 599년?~기원전 527년?) 활동한 인물입니다.
- ⑤ 칼링가 전투에서 승리한 인물은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입니다. 아소카왕은 칼링가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전장을 돌아본 후, 자신의 정복 활동을 반성하며 불교에 귀의하였습니다. 칼링가는 벵골만 근방, 인도 동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2번과 같은 근거로 **쿠산 왕조는 칼링가에서 전투를 벌이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출제자의 COMMENT ★

15번 문제는 자료, 선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으며, 모두 수특의 지엽 개념을 기반으로 제작된 문제입니다. 또한 인도사와 서아시아사에서 중요한 **지도**를 보는 습관을 상기시켜주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수특 지도를 꼼꼼히 보면서 지엽 개념까지 철저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 왕조의 수도 변천사 ★

국가	수도
마우리아 왕조	파탈리푸트라
쿠산 왕조	푸르사푸라, <i>탁실라, 마투라</i>
굽타 왕조	파탈리푸트라
델리 술탄 왕조	델리, <i>아그라</i>
무굴 제국	<i>아그라, 라호르, 델리</i>

16. ④
난이도 | ★★★(어려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윈드 후사르는 16세기에 등장하여 18세기까지 활동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왕국의 기병부대이다. 역사상 최강의 기병부대로 꼽히는 윈드 후사르는 5m에 달하는 랜스(기병용 창)와 등 날개 장식으로 유명하며, 300여 년에 걸쳐 유럽 곳곳에서 활약하였다. 특히 이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은 **1683년 제2차 빈 포위** 때였다. 당시 빈에서는 **150여 년 전의 전성기를 부활코자 하는 (가)**의 15만 군대와, **수도 빈을 지키던 (나)**의 1만 군대가 격돌하였다. 여기에 **기독교 세계의 수호를 명분으로 신성 동맹이 (나)에게 7만 군대를 지원**하였고, 윈드 후사르는 신성 동맹의 일원으로서 2만여 명이 파병되었다. 윈드 후사르가 빈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가)**가 빈을 완전히 포위하였는데, 이들은 **(가)**의 포위망으로 돌격하여 **(가)**의 군대를 격파하고 빈을 수호하였다. 그 덕분에 **(나)**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할 때까지 신성 로마 제국의 '맹주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1683년 제2차 빈 포위', '150여 년 전의 전성기를 부활코자 하는 (가)', '수도 빈을 지키던 (나)', '기독교 세계의 수호를 명분으로 신성 동맹이 (나)에게 7만 군대를 지원' 등을 통해 (가) 국가는 **오스만 제국**, (나) 국가는 **오스트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번 문제는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므로 문제를 풀 때 (가), (나) 국가를 정확히 확정할 필요는 없었으나, (가), (나) 국가를 추론해 나가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1 | **1683년 제2차 빈 포위**
: (가), (나) 국가가 제2차 빈 포위에서 대립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빈 포위는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가 대립한 사건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나) 국가는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또는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 (나) 국가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다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2 | **150여 년 전의 전성기를 부활코자 하는 (가)**
: (가) 국가가 150여 년 전의 전성기를 부활코자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국가는 16세기 초반에 전성기를 누렸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16세기 초에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오스트리아가 언제 전성기를 맞이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3 | **수도 빈을 지키던 (나), 기독교 세계의 수호를 명분으로 신성 동맹이 (나)에게 7만 군대를 지원**
: (나) 국가의 수도가 빈이며, 기독교 세계의 수호를 위해 신성 동맹의 군대가 (나) 국가를 지원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 국가는 기독교 세계에 속하는 오스트리아, (가) 국가는 오스만 제국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④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는 동유럽 패권을 두고 경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이 헝가리를 정복하였고, 두 차례이 빈 포위가 전개되었습니다.**

- 오답인 이유 |
- ① 크림 반도를 두고 전쟁을 벌일 건은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이며, 그 과정에서 크림 전쟁(1853~1856)이 발발하였습니다.
 - ②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 독립 운동을 지원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독립 운동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지원하였습니다.
 - ③ 성지 회복을 두고 대립한 것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 ⑤ 제1차 발칸 전쟁은 오스만 제국과 그로부터 독립하려는 발칸 민족들 사이의 전쟁이며, 발칸 민족들을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이 지원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는 제1차 발칸 전쟁에서 대립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 출제자의 COMMENT ★

16번 문제는 최근 킬러 유형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처럼 같은 지역 내의 국가 간 관계를 물을 수도 있지만,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처럼, 그리고 이 문제처럼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가 간 관계**를 물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여러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국가와 접점을 가지는 국가들(특히 동서 교역로에 위치한 국가들)의 정보를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국가들 ★

세기	국가
B.C. 6C ~B.C. 4C	그리스 세계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1C~3C	로마 - 파르티아 - 쿠산 왕조 - 한
4~6C	비잔티움 제국 - 사산 왕조 페르시아 - 굽타 왕조
11~12C	비잔티움 제국 - 셀주크 튀르크 - 고르 왕조
13~15C	비잔티움 제국 - 오스만 제국 - 델리 술탄 왕조
16~18C	사파비 왕조 - 오스만 제국 - 무굴 제국

17. ②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네빌 체임벌린(1869~ 1940)은 영국의 제60대 수상으로, 결정적인 오판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인물이다. 체임벌린은 ①제1차 세계 대전 중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하였고, ②맥도널드 거국내각의 재무장관으로 기용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체임벌린은 재무장관으로서 대대적인 개혁과 긴축재정을 단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경기가 회복되자, 영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으며 ③1937년 수상으로 취임하였다. 수상이 된 그는 당시 유럽의 골칫거리였던 독일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대독유화 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체임벌린은 ④수데텐(주데텐란트)을 점령한 독일의 수데텐 영유권을 인정하는 뮌헨 협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체임벌린은 뮌헨 협정이 “우리 시대의 평화”가 될 것이라는 연설까지 하였지만, 독일은 뮌헨 협정을 파기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결국 그는 처칠 등의 요구로 ⑤1940년 사임하였고, 해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정답인 이유 |

② 1929년 대공황으로 경제가 불안해지자, 영국은 파운드 블록을 형성하는 동시에, 노동당과 자유당이 연정하여 램지 맥도널드를 수상으로 하는 거국내각을 수립하여 대공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문에 서술된 체임벌린의 개혁과 긴축재정은 대공황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제1차 세계 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의 영향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1차 세계 대전이 사라예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사라예보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에 영향을 주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 ③ 독일은 1933년에 국제 연맹을 탈퇴하였습니다. 1937년에 국제 연맹을 탈퇴한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 ④ 수데텐은 본래 체코의 영토였습니다.
- ⑤ 태평양 전쟁은 1941년에 발발하였습니다.

18. ①

난이도 | ★★★(어려운 연표)

자료 분석 | ※ 2022학년도 수능특강 자료연계 ※

차르께서 2년 전 발표하신 자비로운 선언은 축복받은 백성들의 노예화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파멸시키기를 원하는 일부 전(前) 농노 소유주들은 법과 반대로 전체 토지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이 선택하고 가장 나쁜 토지를 농민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공동체는 황폐한 농지 할당을 거부하고 법령과 일치하는 토지를 할당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르께서 2년 전 발표하신 자비로운 선언은 축복받은 백성들의 노예화를 막았습니다. 등을 통해 다음 문서는 1863년에 발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차르께서 2년 전 발표하신 자비로운 선언은 축복받은 백성들의 노예화를 막았습니다.**

: 차르가 2년 전에 발표한 선언으로 인해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차르가 2년 전에 발표한 선언은 1861년에 발표된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령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문서는 1861년에서 2년이 지난 1863년에 발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① 러시아-튀르크 전쟁은 1876년에 발발하여 187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오스만 제국은 탄지마트 개혁을 중지하고 전제 정치를 계속하게 됩니다.

오답인 이유 |

- ② 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부터 1848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 ③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는 1848년에 개최되었습니다.
- ④ 이탈리아 왕국은 1861년에 수립되었습니다.
- ⑤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는 1825년에 일어났습니다.

정답과 해설

19. ⑤

난이도 | ★★★(쉬운 자료 & 어려운 선지)

자료 분석 |

(가), 영국, (나), (다) 은/는 **알타 회담에 의거하여 베를린에 연합국 관리위원회를 설치, 독일을 4개로 분할하여 통치**하였다. 그러나 **(가)을/를 중심으로 한 제1세계와 (다)을/를 중심으로 한 제2세계** 사이의 냉전이 심화되자 **(가)은/는 영국, (나)이/가 통치하던 지역을 통합**하였다. 이후 **(가), 영국, (나)이/가 통치하던 지역**은 서독이, **(다)이/가 통치하던 지역**은 동독이 되었고, 그렇게 독일은 40여 년 동안의 분단의 역사를 걷게 된다.

(가), 영국, (나), (다) 은/는 **알타 회담에 의거하여 베를린에 연합국 관리위원회를 설치, 독일을 4개로 분할하여 통치, (가)을/를 중심으로 한 제1세계와 (다)을/를 중심으로 한 제2세계** 등을 통해 (가) 국가는 **미국**, (나) 국가는 **프랑스**, (다) 국가는 **소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1 | **(가), 영국, (나), (다)** 은/는 **알타 회담에 의거하여 베를린에 연합국 관리위원회를 설치, 독일을 4개로 분할하여 통치**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과 (가), (나), (다) 국가가 독일을 4개로 분할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나), (다) 국가는 [미국, 프랑스, 소련], [미국, 소련, 프랑스], [프랑스, 미국, 소련], [프랑스, 소련, 미국], [소련, 미국, 프랑스] 또는 [소련, 프랑스, 미국]의 조합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 (나), (다) 국가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다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2 | **(가)을/를 중심으로 한 제1세계와 (다)을/를 중심으로 한 제2세계**

: (가)가 제1세계를, (다)가 제2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는 미국, (다)는 소련임을 추론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나)는 프랑스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⑤ 프랑스와 소련은 모두 UN 상임 이사국이며, 프랑스는 제1세계, 소련은 제2세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와 소련이 UN 상임 이사국으로서 의견 대립을 겪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미국 독립 전쟁 중 프랑스는 미국을 지원하였습니다. 미국 독립 전쟁 중 미국과 교전하였던 국가는 영국입니다.
- ② 마른, 솜 지역에서 대치한 것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의 마른 지역과 솜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마른 전투, 솜 전투)
- ③ 미국은 의회의 반대로 인해 국제 연맹에 가입하지 않았습다. 소련은 초창기에 공산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가, 1934년에 가입하였습니다.
- ④ 프랑스와 러시아는 삼국 협상에 참여하였지만, 1917년 러시아가 혁명으로 인해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이탈하며 삼국 협

상은 결렬되었고, 소련은 1921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소련은 삼국 협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20. ④

난이도 | ★★★(어려운 연표)

자료 분석 |

총독이 영국령 인도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반정부적 또는 혁명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해 이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나 재판 없이, 관보에 통고함으로써 처벌할 수 있다.**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나 재판 없이, 관보에 통고함으로써 처벌할 수 있다.' 등을 통해 다음 법령은 **롤럿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롤럿법은 **191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근거 |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나 재판 없이, 관보에 통고함으로써 처벌할 수 있다.**

: 다음 법령의 주요 내용이 '구속 영장 또는 재판 없는 처벌'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법령은 인도의 민족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구속 영장 없는 체포와 재판 업스 투옥 등을 규정한 롤럿법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이유 |

④ 제1차 세계 대전은 1914년에 발발하였고, 간디의 소금 행진은 1930년에 전개되었습니다.

오답인 이유 |

- ① 세포이 항쟁은 1857년에 진압되었고, 인도 국민 회의는 1885년에 결성되었습니다.
- ② 인도 국민 회의는 1885년에 결성되었고, 콜카타 회의는 1906년에 개최되었습니다.
- ③ 콜카타 회의는 1906년에 개최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은 1914년에 발발하였습니다.
- ⑤ 간디의 소금 행진은 1930년에 전개되었고, 인도 독립은 1947년에 이뤄졌습니다.

정답과 해설

★ 출제자의 REVIEW ★

- ※ 저의 출제 기조가 '문제 풀이의 핵심은 자료 해석이다!'라고는 저번 정답과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지만, 2022학년도 수능 대비 EASY 모의고사 2회는 특히 그 지점에 신경썼습니다. 20문제 모두 높은 수준의 자료 해석 능력을 요하는 문제였죠.
- ※ 1회와 마찬가지로, 뽕밭같은 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의 난이도가 1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일단 문명 문제를 뺀 것부터...
- ※ 이번에는 1회와 달리 괴랄한 연표 문제들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회 11번 문제와 같이, 연표 '만'을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연표 문제는 3문제였고, (11번, 18번, 20번) 부분적으로 연표를 물어보는 문제 하나 1문제 있었지만, (17번) 모두 연표 그 자체보다는 자료 해석과 흐름 파악이 중점이 되는 문제였으니까요.
- ※ 2회도 1회와 마찬가지로, 6월/9월 모의평가가 치러지지 않은 시점이라, 소재의 중요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념 학습이 이뤄지는 시점이기에, 개념의 빈 구멍을 찾기에는 안성맞춤인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구멍을 메우신 후 연표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 ※ 특히 2회에서 강조된 지점이자, 이 세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인도사'입니다. 최근 평가원에서 서아시아사 문제를 어렵게 내고 있는 만큼, 저는 인도사도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쿠산 왕조(15번), 에프탈(6번, 굽타 왕조 및 사산 왕조 페르시아 관련), 델리 술탄 왕조(7번), 영국령 인도 제국(20번) 등 다양한 출제 요소를 활용하였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 ※ 2회의 또다른 특징을 꼽아보자면 '중국사'에 있을 겁니다. 중국사 문제가 세계사 시험에서 킬러의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때문에 저도 중국사 문제는 타 문제보다 난이도를 조금 낮게 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트를 만들 때에는 중국사에도 힘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타 문제보다 난이도가 낮은 느낌이지만, 수·당 문제(2번)는 까다롭다고 느끼시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 ※ 2회의 마지막 특징은 소위 '(가)-(나) 국가 간 관계 유형' 문제입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출제되기 시작했고, 처음 출제될 때부터 킬러 유형으로 자리잡은 유형이죠. 이 세트에서 2문제 출제되었는데, (16번, 19번) 둘 모두 접점이 두드러지지 않는 두 국가 간 관계를 물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충격을 선사했던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유형은 잘 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 6번 문제는 에프탈의 위치와, 주변 국가와의 위치 관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문제를 모티브로 한 문제입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문제, 따로 첨부해 드린 문제와 함께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11번 문제는 이때까지 제가 만들어 온 연표 문제 중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이면서, 가장 완결성 높은 문제입니다. 저는 11번 문제가 연표 문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설에 적은 출제자의 COMMENT를 잘 참고해 주시고, 결국 연표 문제에서 중요한 것도 '개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 ※ 11번 문제가 연표에서 완결성이 가장 높은 문제였다면, 15번 문제는 자료와 선지 모두의 완결성이 뛰어난 문제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다시는 인도사에서 15번 문제 정도의 완결성을 가진 문제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빼어난 문제이며, 개념으로 딱 차 있는 문제이니, 철저히, 아주 철저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어려운 문제들을 해치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EASY 모의고사를 기대해 주세요:D

당신의 수능이 EASY해지는 그날까지,
EASY한 독도바다가 함께하겠습니다.